https://doi.org/10.14400/JDC.2017.15.12.59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분석: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이형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nalysis of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Immigrant Youths: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Hyoung-Ha Lee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 중 만 9~24세 청소년 자녀 6,079명 데이터에 가중치를 적용한 69,720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위험요인인 차별경험, 학교폭력, 우울은 학교적응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호요인인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국적취득은 학교적응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3개의 위험요인 가운데 우울을 조절하는 보호요인 중에는 자아존중감과 국적취득 변인, 학교폭력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은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국적취득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우울감소, 학력폭력 대처,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주요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도입국 청소년, 학교적응, 보호요인, 위험요인,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on risk factors in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immigrant youth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69,720 youths who weighed 6,079 children of youths ages 9-24 among the 2015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school violence and depression, which are risk factors of immigrant youths, all had negative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Parental relations, self-esteem, Korean language ability, and nationality acquisition, which are protective factors, all had a posi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Second, among the three risk factor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immigrant youths, self-esteem and nationality acquisition variables were analyzed as the protective factors moderating depression, and the protective factors controlling school violence were analyzed as parental relationship, self-esteem, Korean ability and nationality acquisition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ecrease in immigrant youths' depression, coping with academic violence, and development and support of various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s were suggested as major social welfare practices.

Key Words : Immigrant youths, School adjustment, Protective factor, Risk factor, Moderating effect

Received 18 October 2017, Revised 21 November 2017
Accepted 20 December 2017, Published 28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Hyoung-Ha Lee
(Kwangju Women's University)
Email: hhlee62@kw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명실공히 다문화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업투자자 등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외국출신 거주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늘어나고 있다[1]. 이러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인구집단은 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즉, 이전의 가족형태와 달리 이들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가족문제와 더불어 인종, 언어 등 보다 근본적인 차이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2]. 특히, 한국에 재혼하기 위해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본국, 초혼에서 얻은 자녀들인 '중도입국 청소년'이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되어 전혀 낯설은 언어, 문화, 학교부적응의 다양한 사회적 배제와 일탈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주에는 국제결혼이민자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 새터민 자녀 이외에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한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책대상으로서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해외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으로서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첫째, 결혼이민자의 전혼 출생 자녀로 한국에 이주한 경우와 둘째, 한국에 취업이민한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았거나 한국을 오랜 기간 떠나 있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 부모의 환경변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함으로써 부여받은 사회적 지위이다[3]. 이들 중도입국 자녀들은 결혼이주 후 한국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과 달리 성장기의 대부분을 부모의 돌봄 없이 외국에서 보낸 탓에 정서적 결핍감, 언어 장벽, 정보 부족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4].

한국 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되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제재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5].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 입국 시 미국적 상태인 경우가 많고, 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크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호자인 부모와 떨어져 지낸 경험으로 인해 나타난 부모와 약한 정서적 유대와 가치관 등의 차이, 친한 또래 등 심리적 지지체계와도 분리경험을 겪게 된다. 또한 한국어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학생 간 따돌림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생활에 힘들어 한다[6, 7].

교육부(2016)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외국출신 부모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총 8만 2,536명으로 전체 학생의 1.4%를 차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전체 학생 수는 최근 5년 사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수는 급증 추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8]. 이와 대조적으로 학령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학업중단 사례는 2012년 6,764명에서 2013년에는 9,720명으로 급증하였다[9]. 또한 외국에서 성장한 15세 이상 중도입국청소년들의 1/3 가량이 교육/훈련이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는 일반청소년의 니트 비율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결국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1].

한편, 학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회체계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적응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예측하는 주요한 지표이다[11, 12].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risk factors)으로 또래로 부터의 차별과 따돌림, 또래집단의 동조압력을 동반한 학교폭력은 학교생활 부적응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주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차별적 인식 또한 주요한 요인이다[13, 14, 15, 16, 17]. 한국입국 후 중도입국 청소년 자신의 연령과 차이가 나는 학년배치와 체계적인 학습지도 부재, 학교생활 흥미부족, 학교공부의 어려움에 따른 학습부진 등을 경험하게 된다[15]. 이에 더하여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충돌, 낮은 가족결속력, 학교에서의 차별과 폭력 경험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18, 19, 20]. 물론 다문화 가정

의 청소년 모두가 학교체계에서 부적응을 겪는다는 일반화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은 특정 인구사회학적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21, 22], 이는 일반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인 위기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에 기인한 인지된 차별의 문제[21, 22, 23]와 같은 위험요인은 학교부적응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24, 25].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 또는 중재할 경우 학교적응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26, 27]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적인 것임과 동시에 그들을 일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가족의 어려움이다. 가족은 개인이 살아가는데 일차적인 사회환경으로서 개인의 행동 및 성격 발달, 인생 전반에 걸친 삶의 방향이나 생활양식, 문제해결 방식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관심과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높은 관계의 질 유지라는 보호요인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사회 입국 초기에 언어문제는 학업과 진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한국생활에 적응기를 거치면서 점차 한국어 사용은 학교적응에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의 조사결과[9]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듣기수준 3.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읽기 3.21점, 말하기 3.10점, 쓰기 3.04점으로 비교적 평균이상 수준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나타냈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능력이 18.15점(20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8].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귀화를 희망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대부분 한국 체류계획과 정착가능성이 높고 한국에서 진로계획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9]. 한국국적 취득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주요한 보호요인이다[19]. 이와 더불어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과 같은 부족한 자원이나 가족 특성을 가진 청소년에게는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30].

다문화 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드문 편이며,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주로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19, 30, 31],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에 관한 연구[17, 33], 진로의식과 진로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34] 등이 있다. 또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32], 포토보이스 방법을 적용한 이주 후 초기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35]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과정, 양상 등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탐색하여 이를 조절해주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두 요인의 분절된 설명의 한계를 넘어 통합적 설명이 가능한 적응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위험요인에 대한 다양한 대처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도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학교적응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학교적응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위험요인, 보호요인은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넷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구성에 있어 사용된 연구변수들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위험요인(차별경험, 학교폭력경험, 우울), 보호요인(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능력, 한국국적취득)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중도입국 청소년의 위험요인, 보호요인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중도입국 청소년의 위험요인이 학교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방법

2.1 분석자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가승인통계(제11779호)로서 3년 주기로 시행된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기준일은 2015년 7월 1일이며, 7월 22일~8월 18일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 즉,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그의 배우자 및 만 9~24세 청소년 자녀와 가구이다.

조사 완료된 가구 구성표는 표본가구 27,120가구 중 65.8%인 17,849가구이며, 결혼이민자·귀화자 조사표는 표본가구의 63.1%인 17,109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만 9~24세 자녀에 대한 조사는 가구에 만 9~24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연령대의 자녀 모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6,079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청소년자녀 6,079명 데이터에 가중치를 적용한 69,720명이다.

2.2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en	35,798	51.3
	women	33,921	48.7
age	9-11	25,216	36.2
	12-14	19,724	28.3
	15-17	14,352	20.6
	18-24	10,428	15.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8,930	45.0
	middle school	18,859	29.3
	high school	12,841	20.0
	college or higher	3,648	5.6
pre-birth nationality	China	3,614	65.2
	China(Korean based)	597	10.8
	Japan	119	2.1
	Mongolia	132	2.4
	Philippines	183	3.3
	Vietnam	246	4.4
	Other countries	651	11.8

성별은 남성 51.3%, 여성 48.7%이며, 연령대는 9~11세 36.2%, 12~14세 28.3%, 15~17세 20.6%, 18세이상 15.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 재학 45.0%, 중학교 재학 29.3%, 고등학교 재학 20.0%, 대학교이상 재학 5.6%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시 국적은 중국 65.2%, 기타 국가 11.8%, 중국(한국계) 10.8%, 베트남 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3 측정도구

2.3.1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이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고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1점)부터 '매우 잘 적응한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문항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파악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3.2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대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9~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수준은 '초등학교'부터 '대학 이상'까지의 재학으로 측정하였다.

2.3.3 위험요인

차별경험은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1점)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다'(4점)까지의 5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교폭력 경험은 '지난 1년 동안 협박·욕설·괴롭힘 등 9가지 유형의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9문항으로 각각 '없었다'(0점)부터 '있었다'(1점)로 측정하였다.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인 '①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 ②집단 따돌림(왕따), ③ 강제심부름과 같은 괴롭힘, ④ 돈 또는 물건을 빼앗음, ⑤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에 갇힘, ⑥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행동 또는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 ⑦ 인터넷 채팅, 이 메일, 휴대전화로 욕설과 비방, ⑧ 스토킹, ⑨ 기타'로 해당하는 경험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우울은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

프거나 절망감을 느꼈습니까?'에 대해 '그전 적 없다'(1점)부터 '매우 자주 느꼈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4 보호요인

부모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2문항으로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등의 3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859 이었다.

한국어능력은 '전혀 못한다'(1점)부터 '매우 잘한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국국적 취득은 '없다'(1점), '있다'(2점)로 측정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학교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간 관계와 방향성 및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계수(Pe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를 산출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위험요인(차별경험, 학교폭력, 우울), 보호요인(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한국국적 취득)과 학교적응간의 인과관계 분석,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text{회귀식}(y) = b1*A + b2*B + b3*AB + C = (b1 + b3*B)A + (b2*B+C)$$

b1=변인A의 회귀계수, b2=변인B(조절)의 회귀계수, b3=변인A의 회귀계수×b2=변인B의 회귀계수
A=변인A의 표준편차, B=변인B(조절)의 표준편차, C=상수

3. 연구결과

3.1 주요 요인 평균 분석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 위험요인, 보호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교적응은 4.52(표준편차 .71)로 매우 높은 적응정도를 나타냈다. 위험요인인 차별경험 9.13(표준편차 2.37), 학교폭력 .06(표준편차 .31), 우울 1.20(표준편차 .48)으로 비교적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요인인 부모관계 8.27(표준편차 1.77), 자아존중감 11.55(표준편차 2.40), 한국어 4.73(표준편차 .64), 한국국적 .96(표준편차 .19)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Table 2> Average Analysis pf Key Factors

	N	Mini	Max	M	SD
1	61,812	1.00	5.00	4.52	.71
2	4,309	5.00	19.00	9.13	2.37
3	69,720	.00	1.00	.06	.31
4	69,720	1.00	4.00	1.20	.48
5	68,020	2.00	10.00	8.27	1.77
6	69,720	3.00	15.00	11.55	2.40
7	69,720	1.00	5.00	4.73	.64
8	69,720	.00	1.00	.96	.19

1=school adjustment, 2=discrimination experience, 3=school violence, 4=depression, 5=parent relationship, 6=self-esteem, 7=korean language ability, 8=nationality acquisition

3.2 각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작용하는 위험요인으로 차별경험, 학교폭력, 우울과 보호요인으로 가정된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한국국적 취득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1	1							
2	-.221**	1						
3	-.178**	-.071**	1					
4	-.250**	.231**	.173**	1				
5	.284**	-.266**	-.045**	-.183**	1			
6	.398**	-.162**	-.048**	-.217**	.338**	1		
7	.251**	-.249**	-.070**	-.105**	.104**	.174**	1	
8	.058**	-.164**	-.028**	-.013**	-.037**	.004	.171**	1

1=school adjustment, 2=discrimination experience, 3=school violence, 4=depression, 5=parent relationship, 6=self-esteem, 7=korean language ability, 8=nationality acquisition

분석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위험요인으로 투입된 차별경험, 학교폭력, 우울 등은 부(-)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 우울과의 상관(r=-.205, p<.005)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보호요인으로 투입된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한국국적 취득 등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 자아존중감과의 상관(r=.398, p<.005)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3 각 요인 간 회귀분석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참조). 먼저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진단결과 VIF값은 1.027~2.63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구학적 요인, 위험요인, 보호요인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242.958, p<.001). 인구학적 요인인 성별과 연령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여학생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위험요인인 차별경험, 학교폭력, 우울은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호요인인 부모관계, 자아존중, 한국어 능력, 한국국적 취득은 모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40.1%였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

	B	SD	*B*	t
(constant)	2.510	.132		18.966***
gender	-.073	.025	-.039	-2.952**
age	-.052	.018	-.060	-2.890**
education	.067	.023	.061	2.924**
discrimination experience	-.041	.006	-.101	-7.241***
school violence	-.163	.016	-.138	-10.162***
depression	-.254	.020	-.183	-12.561***
parent relationship	.091	.007	.196	13.261***
self-esteem	.115	.005	.358	24.590***
korean language ability	.032	.015	.030	2.047**
korean nationality	.382	.055	.095	6.983**
R^2=.401, F=242.958***				

p<.01**, p<.001***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우울(B=-.183, p<.001), 학교폭력(B=-.138, p<.001)을 중심으로 각 보호요인(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한국국적 취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결과를 국한시키고자 한다.

3.4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들이 조절효과

보호요인은 학교적응에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 또는 상쇄시키는 기능을 한다. 위험요인으로 우울이 작용할 때, 보호요인으로 가정된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한국국적 취득 각각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1단계 분석에서 투입된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B=-.250, p<.001)의 설명력은 6.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108.21, p<.001). 2단계에서는 보호요인으로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한국국적 취득을 추가 투입하였고, 그 결과 모든 보호요인들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호요인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점수도 높아진 것을 의미하며, 각 모델의 B값과 수정된 설명량은 부모관계 .246과 5.9%, 자아존중감 .360과 12.4%, 한국어 능력 .225와 5.0%, 한국국적 .049와 3.0%이었다. 3단계에서 우울과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한국국적 취득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a(우울)×c(자아존중감)(ΔR^2=.002), a(우울)×e(한국국적 취득)(ΔR^2=.002) 상호작용변인의 설명력만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간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그래프를 산출하였다. 우선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Fig. 1]과 같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우울이 낮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전반적인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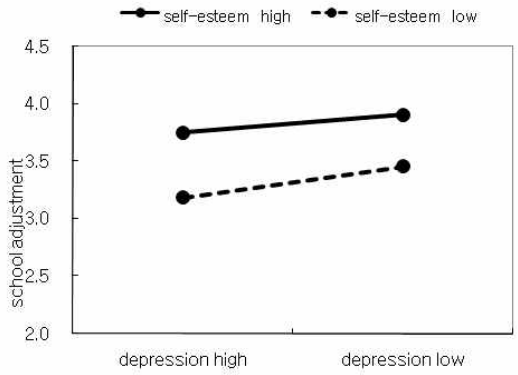
1) 상호작용항을 투입할 경우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각각의 변수 값 대신에 mean centering 값을 대신 사용하였다. 각 모델의 VIF값은 1.001~3.230 수준으로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우울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더욱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완화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Table 5> Moderating effect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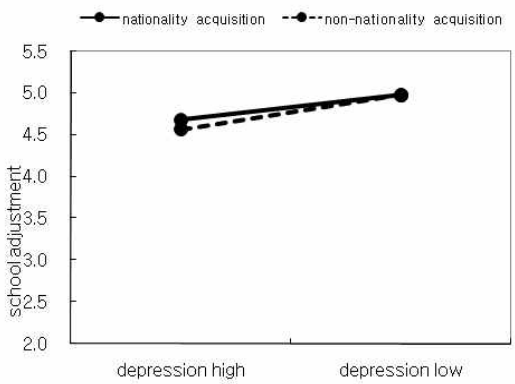
	variable	R	R^2	$\triangle R^2$	F	*B*	t
1	a	.250	.062	.062	4108.21	-.250	-66.09***
2	b	.348	.121	0.059	4156.78	.246	63.19***
	c	.431	.186	.124	7051.79	.360	96.81***
	d	.335	.112	.050	3900.05	.225	58.83***
	e	.254	.065	.003	2136.84	.049	12.45***
3	a×b	.348	.121	-	2772.97	.009	2.19*
	a×c	.434	.188	.002	1963.73	.051	12.82***
	a×d	.335	.112	-	2610.07	.020	5.18***
	a×e	.259	.067	.002	1480.29	.049	12.50***

p<.05*, p<.001***
a=depression, b=parent relationship, c=self-esteem, d=korean language ability, e=nationality acquisition



[Fig. 1]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다음은 국적취득과 우울간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그래프를 산출하였다. 국적취득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Fig. 2]와 같다. 국적취득을 한 집단과 하지 못한 집단 모두 우울이 낮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였다. 국적취득을 한 집단이 다소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고, 우울이 낮아지면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적취득은 우울을 완화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2]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ity acquisition and depression

3.5 학교폭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들이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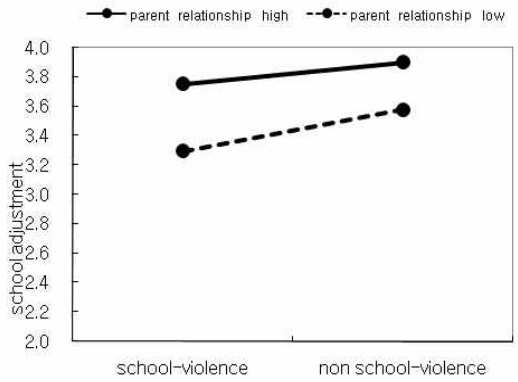
위험요인으로 학교폭력이 작용할 때, 보호요인으로 가정된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국적취득 각각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참조). 1단계 분석에서 투입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폭력(*B*=-.178, p<.001)의 설명력은 3.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014.39, p<.001). 2단계에서는 보호요인으로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국적취득을 추가 투입하였고, 그 결과 모든 보호요인들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호요인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점수도 높아진 것을 의미하며, 각 모델의 *B*값과 수정된 설명량은 부모관계 .276과 10.7%, 자아존중감 .390과 18.4%, 한국어 능력 .239와 8.8%, 한국국적 .049와 2.0%이었다. 3단계에서 학교폭력과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한국국적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a)학교폭력×(c)자아존중감(△R2=.004), (a)학교폭력×(d)한국어능력($\triangle R^2$=.003), (a)학교폭력×(e)한국국적 취득(△R2=.001) 상호작용 변인의 설명력만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Moderating effect between school violence and school adaptation

step	variable	R	R^2	$\triangle R^2$	F	*B*	t
1	a	.178	.032	.032	2014.39	-.178	-44.88***
	b	.326	.107	.075	3589.92	.276	71.44***
	c	.428	.184	.152	6949.91	.390	107.28***
2	d	.297	.088	.056	2993.06	.239	62.01***
	e	.184	.034	.002	1085.30	.049	12.29***
	a×b	.330	.109	.002	2457.07	.052	13.08***
3	a×c	.434	.188	.004	4783.64	.071	19.19***
	a×d	.300	.090	.002	2032.22	-.041	-10.04***
	a×e	.188	.035	.001	754.92	-.039	-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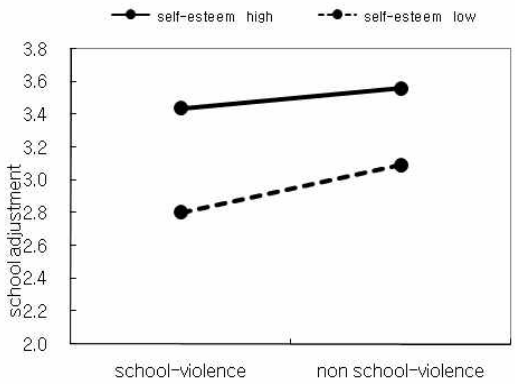
a=school violence, b=parent relationship, c=self-esteem, d=korean language ability, e=nationality acquisition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관계와 학교폭력간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그래프를 산출하였다. 우선 부모관계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Fig. 3]과 같다. 부모관계가 좋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학교폭력이 없을수록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였다. 부모관계가 좋은 집단은 전반적인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고, 학교폭력이 없고 부모관계가 좋은 경우 더욱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긍정적인 부모관계는 학교폭력을 완화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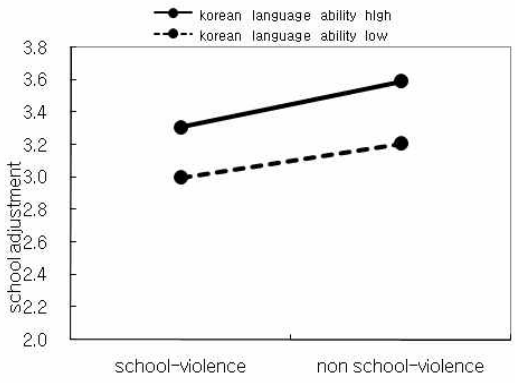
[Fig. 3] Moderating effect of parent relationship school violence

다음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Fig. 4]와 같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학교폭력이 없어짐에 따라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고, 학교폭력이 없어지면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교폭력을 완화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4]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chool vio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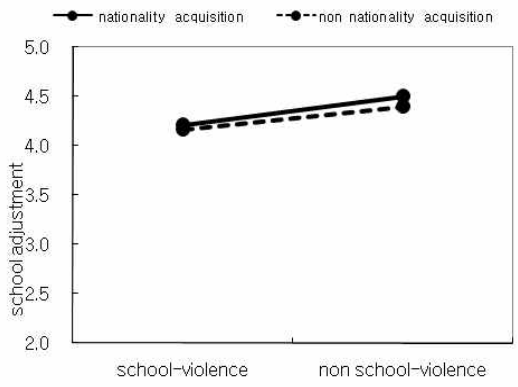
한국어 능력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Fig. 5]와 같다. 한국어 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학교폭력이 없어짐에 따라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였다. 한국어 능력이 높은 집단이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고, 학교폭력이 없어지면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은 학교폭력을 완화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5] Moderating effect of korean language ability and school violence

마지막으로 국적취득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Fig. 6]과 같다. 국적취득 한 집단과 하지 못한 집단 모두 학교폭력이 없어짐에 따라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였다. 국적취득을 한 집단이 다소 학교적응 수준이 높

았고, 학교폭력이 없어지면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적취득은 우울을 완화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6]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ity and school violence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 중 만 9~24세 청소년 자녀 6,079명 데이터에 가중치를 적용한 69,720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위험요인인 차별경험 9.13(범위 5~19), 학교폭력 0.06(범위 0~1), 우울 1.20(범위 1~4)으로 비교적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요인인 부모관계 8.27(범위 2~10), 자아존중감 11.55(범위 3~15), 한국어 능력 4.73(범위 1~5), 한국국적 0.96(범위 0~1)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학교적응은 4.52(범위 1~5)로 매우 높은 적응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중 중도입국 청소년을 분석한 선행연구[20]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조사에서는 위험요인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10.4%와 비교해 6.0%로 낮아졌고, 차별경험이 8.03과 비교해 9.13으로 증가했고, 우울은 1.37과 비교해 1.20으로 낮아졌다. 보호요인인 부모관계는 8.36과 비교해 8.27로 다소 낮아졌고, 한국어 능력은 4.16과 비교해 4.73으로 매우 높아졌고, 국적취득은 52.2%와 비교해 96%로 높아졌다. 다만, 2012년 조사에서는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은 측정되지 않았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위험요인인 차별경험, 학교폭력, 우울은 학교적응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호요인인 부모관계, 자아존중, 한국어 능력, 한국국적 취득은 학교적응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40.1%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주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13, 14, 15, 16, 17], 학교에서의 차별과 폭력 경험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8, 19, 20, 37]와도 일치하고 있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3개의 위험요인 가운데 보호요인들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설명력이 높은 우울과 학교폭력 변인을 준거로 삼았다. 우울을 조절하는 보호요인 중에는 자아존중감과 한국국적 취득 변인만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한다는 선행연구[36]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은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국적취득 변인 모두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2]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자아존중감은 다문화가정, 취약계층과 같은 부족한 자원이나 가족 특성을 가진 청소년에게는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30]와도 일치하고 있다. 한국국적 취득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에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19]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우울과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차별로 인한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지지적 환경조성을 통한 우울감 감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단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은 교사의 집중적인 관심과 배려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며,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또래집단과 원만한 교우관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는 관계향상 프로그램 지원, 일

반 청소년과 함께하는 다문화공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38, 39]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위험요인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넓혀나가는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가족정체성과 개인정체성을 알 게 하는 지원방안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 자신의 환경을 부정하기 보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한 자아발견과 학교생활 참여도를 높이는 전문적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적 취득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생활과 진로설계에도 매우 중요한 법적 권리임과 동시에 교육적 권리라는 점에서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절적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벗어나 두 요인의 통합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교사, 학교, 또래집단 등의 사회적 지지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REFERENCES

[1] K. M. Yang, H. Y, Jo, “The Exploratory Study of Psycho-Social Adjustment of Immigrant Youth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11, pp. 195-214, 2012.

[2] S. G. Kim, “The Psycho-social Adaptation amo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3, pp. 247-272, 2011.

[3] K. S. Jeon, E. J. Lee, “A Study on the adaptation support plan for children entering the middle school in multicultural families.” Gyeonggido Family and Women Research Institute.

[4] Y. S. Kim, (2016. April 1). Into the world.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

[5] B.C. Lee, D. Y. So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Youth from Accompanied Ent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3, No. 4, pp. 131-154, 2011.

[6] K. M. Yang, H. Y, Jo, “A Exploring Study on the Educational Situation and Career Expectation of Youth Migrants in Korea,”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4, No. 3, pp. 141-168, 2012.

[7] B. R. Ryu, Education and support pla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8] Y. J. Park, “Study of Issues and Alternativ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Multicultural Contents Research, Vol 21, pp. 297-322, 2016.

[9] C. K. Yoon, I. J. Choi, S. R. Yoo, K. H. Kim, Study on discontinued youth panel and support plan Study III,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15.

[10] E. S. Kim, H. S. Jung, J. Y. Dong, Policy Tasks for Healthy Growth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Family, 2015.

[11] T. S. Song, “A Study on Variables the Related to Children's Adjustment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1, No. 3, pp. 167-189, 2004.

[12] H. K. Kim, “A Study on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Doctoral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1.

[13] M. W. Fraser,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NASW Press, 1997.

[14] P. Voydanoff, B. W. Donnelly,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grades among adolescent,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0, No. 3, pp. 328-349. 1999.

[15] Y. J. Lee, “A Study on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 of a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4, No. 2, pp. 103-119, 2009.

[16] B. Y. Khu, “The Mediation Effects of relationship with parent, teacher, and peer between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Scho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2, pp. 347-373, 2012.

[17] Y. S. Lee, H. S. Kim,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School Maladjustment among Immigrant Children and Youth: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rom Teacher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9, pp. 263-283, 2014.

[18] G. S. Lee, "Cultural diversity and family life educatio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19, pp. 211-242, 2008.

[19] D. H. Jwa, "A Research on the Psycho-social Adaptation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Youths based on Nationality and Acculturation Typ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1, pp. 97-126, 2014.

[20] S. H. Oh, H. S. Jwa, "The factors affecting on depress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s and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32, pp. 385-412, 2015.

[21] C. A. Wong, J. S. Eccles, A. Sameroff, "The influence of ethnic discrimination and ethnic identification o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school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Vol. 71, No. 6, pp. 1197-1232, 2003.

[22] R. Seifer, A. J. Sameroff, C. P. Baldwin, A. Baldwin, "Child and family factors that ameliorate risk between 4 and 13 years of ag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31, No. 5, pp. 893-903, 1992.

[23] S. J. An, H. C. Lee, J. Y. Lim, "The Influences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Vol. 31, No. 2, pp. 77-91, 2013.

[24] E. Flores, D. Cicchetti, F. A. Rogosch, " Predictors of resilience in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Latino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1, No. 2, pp. 338-351, 2005.

[25] J. B. Kim, S. H. Park, "A Study on School Maladjustment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ego resilience," Multicultural Youth Panel Conference Resources, pp. 3-26, 2017.

[26] K. A. Tyler, L. B. Whitbeck, D. R. Hoyt, A. M. Cauce, "Risk factors for sexul victimization among male and female homeless and runaway yout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30, No. 3, pp. 503-520, 2001.

[27] S. C. Han, "Analysis to Influence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n Adolescent's Sex Risk Behavior,"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6, No. 4, pp. 185-210, 2009.

[2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Family,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2012.

[29] K. S. Jun, M. K. Song, "A Research on the Differences of Adjustment Level by Multicultural Children's Nationa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1, pp. 305-330, 2011.

[30] D. H. Lee, "The Mediated Effects of Self Esteem,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Multi Cultural Youth,"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544-552, 2016.

[31] C. R. Nho, J. J. Hong, "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gi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22, pp. 127-159, 2006.

[32] S. W. Park, H. J. Woo, "How Multicultural Youths Become Koreans: A Grounded Theory on the Adaptation of Immigrant Students," Theory and Society, 2013 Fall/Winter, pp. 211-304, 2013.

[33] K. S. Jun, "A Study on the Career Preparation of Immigrant Youths in a Multicultural Background and Plans of their Settlement in Korean Society," GRI REVIEW, Vol. 18, No. 1, pp. 441-473, 2017.

[34] S. B. Oh, D. H. Seo, "An investigation into the condition of Immigrant youth's career consciousn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ocial support," Secondary Education Studies, Vol. 60, No. 2, pp. 517-552, 2012.

[35] J. H. Yi, K. H. Kim, M. Y. Ra, "Lived Experiences and Visual Expressions from Immigrant Adolescents in Korea during their Early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45, pp. 103-130, 2014.

[36] S. J. Kim, C. H. Hong,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problems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y :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1, pp. 195-211, 2017.

[37] C. S. Lee, H. Y. Jang, "A Study on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Depression: Based on Gender Comparis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9, pp. 47-54, 2017.

[38] S. H. Park, J. H. Yu,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 on Empathy in Adolesc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4, pp. 499-510, 2017.

[39] S. J. Park, Y. J. Bae, S. H. Park, S. A. Kim, "A Study on Multi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Fields of Human Services for the Era of Fusion and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493-507, 2015.

이 형 하(Lee, Hyoung Ha)

・1988년 2월 : 전남대학교 사학과(문학사)
・2000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2004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2004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정책, 사회복지법제
・E-Mail : hhlee62@kwu.ac.kr